

The Factor of National Planning for Public Library

● 大會主題發表論文

公共圖書館發展을 위한 圖書館政策

玄圭變

國立中央圖書館司書官

序言

本文은 일찍이 도협월보의誌上을 통하여主張한 바 있는「産業社會에 對處하는 公共圖書館의 機能」을¹⁾土臺로 하여 政策的 項目만을 부연시킨 것이다. 따라서 前半部는 前記論文의 內容을 簡約하게 다시 한번 反復한 것이며 모든 論證을 省略한 것이다. 後半部는 公共圖書館의 機能의 變化로 부터 始作된다. 이 部分부터는 前述論文을 다시 부연하였거나 發展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 部分부터는 論證이 부가되었다.

大體로 公共圖書館에 對한 理論의 基礎는 社會의 經濟的 側面으로 부터는 直接的으로 아무런 變化를 받지 않는다는 데서 부터 出發되고 있다. 즉 公共圖書館은 社會經濟的 變化와는 相關없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後續되는 파급효과에 不過한) 機構로 認識되고 있다. 筆者는 이러한 見解에 對하여 反對의 立場을 취하여 왔다. 公共圖書館은 根本的으로 社會의 經濟的 變化에 對應하는 存在라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Jesse H. Shera도 지적한 바와 같이 公共圖書館의 目的은 社會의 目的과 直接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²⁾ 社會의 目的은 무엇보다도 經濟的 成長이라는 第一의 目的을 成就하는데 集約되어 있음을 어느 누구도 否認할 수 없기 때문이다. 社會開發이나 社會教育에 公共圖書館의 存立基盤을 局限하려는 것은 傳統과 歷史物 그리고 理論의 可能性에 비추어 볼 때에는 當然하다 하겠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두 側面은 相反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은 相互 補完하는 各各의 社會發展要素들인 것이다. 公共圖書館이 이 중 어느 하나에만 致中될 수는 없다. 오히려 第一義的 變化要因인 經濟的 變動은 우선적으로 對應하여야 할 要素인 것이다.

1) 玄圭變「産業社會에 對處하는 公共圖書館의 機能」도협월보 15(6)/15(7) 1974, 6—9. 참조

2) Jesse H. Shera. 「The public library in perspective」 in The Metropolitan library. Cambridge, MIT press, 1972. p. 101—122 참조

이러한 觀點은 本文의 全體를 통하여 누누히 지적된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圖書館大會에 發表用으로 作成되었던 簡條式 文體는 그대로 개제한다. 특히 政策提議項目은 이를 細分하여 強調點과 說明部分을 區分하였다.

1. 社會變動과 公共圖書館

① 「圖書館은 社會的 機構 Social apparatus」라는 Pierce Butler은 理念은 특히 公共圖書館을 社會의 要求에 對應되는 存在라는 點을 強調한 것이다. 現代社會는 加速화된 變化의 過中에 있는 動態의 存在이며 公共圖書館역시 이러한 變動에 對應하는 存在라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現代社會의 변동추세의 파악은 곧 공공도서관의 指向點을 發見하는 것이 된다.

② 現代社會의 發展은 W.W. Rostow가 指摘한 바와 같은 다섯단계의 經濟成長 모형에 따라 變化되어 왔다. 즉 (1)傳統의 段階—原始的 農耕時代에 해당된다. (2)過度의 段階—農業生産力이 增大되고 工業需要가 增加하며 광범한 Nationalism이 形成된다. (3)飛躍段階—農業의 二次産業化産業機衛이 促進되고 國際規模의 經濟關係가 이루어진다. (4)成熟段階—戰略的 産業의 確定, 二次産業構成比의 增加가 이룩된다. (5)高性消費社會—第三次産業이 擡頭되고 各種 서어비스業의 社會的 意味가 增大된다.

③ 오늘 날에는 Rostow가 제시한 最終段階 다음에 오는 社會模型에 對한 論理가 提示되어 있다. 이에 대한 一般의인 見解는 Fritz Machlup가 提示한 知識社會 (Knowledgeable Society)와 Paiael Bell이 提示한 脫工業社會 (Post Industrial Society)가 된다. 이 두학자의 거론을 종합하면 새로운 社會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1) 專門職 技術職 및 서어비스業의 知的職業群이 社會構成比의 過半數 以上이 된다.

2) 教育人口는 急速히 成長하여 高等教育履修者가

40%以上이 된다.

3) 모든 社會的變化는 理論的 知識에 기초하며 새로운 知的技術에 依하여 人爲的으로 誘導된다.

4) 研究開發費가 增大된다.

④ 이러한 社會가 要求하는 공통된 要素는 知識이 社會的變化的 主體가 되며 이 知識의 源泉이 되는 情報의 공급이 可能한 社會的構造(지식產業의 擡頭 컴퓨터의 社會적 의존도의 增大, 서어비스業의 創出 等)가 이 擡升되는데 있는 것이다. 知識社會와 脫工業社會는 現代의 어느 社會이건 指向하고 있는 社會모형이며 潮流인 것이다.

2. 韓國社會의 變動趨勢

① 社會變動의 世界的 潮流에 따라 韓國의 社會的變動 역시 急激하게 進行되어 왔다. 우선 지난 十餘年間 韓國의 經濟成長은 擘擘할만한 發展을 이룩하였다. 國民所得의 增大, 產業의 확장, 國際規模의 經濟的關係의 擴散 等이 急激하게 增大되었던 것이다.

② 이러한 經濟成長은 必然的으로 產業人口의 分布比率를 變化시켰다. 農水産部門의 人口는 1963年以來 서서히 減少되기 시작하고 反面에 鑛工業과 서어비스業部門의 人口는 서서히 增大되기 시작하였다. 장기趨勢로는 1986년에는 農水産部門의 人口가 52.2% 기타 人口가 47.8%에 도달되리라고 展望되고 있다.

③ 두번째 變化는 教育人口의 增大이다. 초등教育의 人口는 全人口의 62% 高等教育은 34%에 이미 도달되고 있고 長期趨勢로는 前者가 1986年代에는 95~98%에 達하고 高等教育은 42%까지 增大될 것이다.

④ 세번째 특징은 研究開發費의 增大이다. 이分野는 아직 充分한 資料가 없으나 1967年 韓國의 社會開發費는 全 GNP에 對하여 0.4%를 마크하고 있다. 以後 政府는 相當한 分量의 投資를 直接 또는 間接으로 하여오고 있다. 政府後援形의 各級研究所 KIST, KDI 等의 育成 과학원의 설치 等이 그 實例라 하겠다.

⑤ 네번째로는 政府의 役割이 그 어느 때 보다 重要하여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現代國家가 福祉 社會建設을 指向하면서 社會開發에 中心의 役割을 擔當하여 왔던 것은 時代의 要請이었다. 政府는 技術의 혁신 產業의 發展 經濟의 成長 및 需要의 移動에 이르는 重要政策의 主導的存在(Big Government)인 것이다.

⑥ 다섯번째 韓國社會의 특징은 餘暇時間(Leisure)의 增大이다. 有給休暇의 制性化, 產業社會의 量物로서 休息이라는 개념은 널리 擴散되어 있다. 여가시간의 增大는 앞으로 더욱 늘어 나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

⑦ 끝으로 우리 社會의 重要한 또 하나의 變化는 倫

理와 理念의 變化가 이룩되고 있다는 點이다. 產業社會를 指向하는 社會的 構造的 變化는 必然的으로 國民의 倫理와 理念上의 變化를 招來하게 되는 것이다.

3. 社會로 부터의 要求

① 韓國社會의 構造的 變化와 그 意識의 變化는 世界的인 社會發展趨勢에 따라 知識社會를 向하여 進化되어가고 있다. 社會가 發展되면 될수록, 그것이 知識社會로 向하여 前進하면 할수록, 圖書館에 對한 要求는 더욱 增大하며 그 大部分은 公共圖書館에 依하여 充足되지 않으면 안된다.

② 社會로 부터의 要求는 그 變化의 進行에 따라 提起되어지는데 이를 간결하게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變化되는 要素	社會의 現상	精報의 要求
1. 産業別 人口分布의 變化	工業人口와 서비스 部門의 人口 증가	技術 및 産業情報의 요구
2. 高等教育의 增大	研究中間의 人口 증가	理論的 知識의 要求
3. 政府의 役割 增大	行政機構의 增大 및 專門化	行政的 資料의 要求
4. 研究開發의 增大	研究機構의 增大 및 研究者의 增大	理論的 研究情報의 要求
5. 技術 革新 進化	기술공業의 발전	기술 정보의 輸入와 配布
6. 餘暇時間의 增大	순화된 人間性의 問題	자기 정상의 해결을 위한 情報
7. 倫理, 理念의 變化	國民 계몽과 윤리 道德의 선도의 필요성	問題 해결을 위한 독서 극미 제공의 문제

③ 公共圖書館은 특히 이러한 社會的 要求에 對한 彈力的인 對應體라야 한다. 社會가 公共圖書館에 要求하는 바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技術産業의 情報要求
2. 理論的知識의 情報的 要求
3. 行政的 資料의 要求
4. 自我改善을 위한 感動的 資料의 要求—취미 오락 等 感性적 資料
5. 自我革新을 위한 知的 情報의 要求—知的 資料의 要求

4. 公共圖書館機能의 變化

① 社會變動에 對한 공공도서관의 對應은 먼저 機能의 革新으로부터 出發되어야 한다. 즉 傳統的意味의 公共圖書館機能은 위에서 指摘한 바와 같은 強力한 社

會的要求에 對應될 수 없다는 것이다.

② 傳統的意味의 公共圖書館機能은 1852年 Boston Public Library의 年次報告書에 記錄된 簡략한 聲明이 代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報告書에는 公共圖書館의 機能을 다음의 세가지로 들고 있다.

(1) 教育의 基本機構(principle instrument of instruction in places of education)

(2) 公共教育의 制度(system of public education)

(3) 大衆에게 一般的情報를 提供하는 機構(the means of general information)

라고 定義하였다.³⁾ 이는 公共圖書館을 學校教育의 補完手段으로 하며 그 外에 學校教育의 惠澤을 받지 못한 大衆의 教育과 日常生活에 必要한 一般의인 情報를 담당하는 機構로 定立하고 있다.

③ 이와 같은 傳統的의告의 機能은 教育機關自體가 設置한 圖書館의 增加傾向(increasing trend of educational institutions to establish libraries)과 高等教育機關의 研究圖書館의 增大로 因하여 再考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⁴⁾ 1963年 美國에서 개최된바 있는 Symposium on Library function in the changing metropolis에서는 Salishury나 Lipoman같은 이는 學校圖書館과의 더욱 진밀한 유대를 강조한 반면 Banfield나 Martin같은 이는 이를 부인하고 公共圖書館의 利用者는 General Reader가 아니라 serious reader이며 모든 이용자가 다 唯一하고 特定分野를 研究하는 者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위한 機能의 擴大를 主張하고 있다.

④ Lawrence L. Durish의 公共圖書館 目的에 對한 見解는 가장 進취적이며 구체적이다. 그는 向後 20年間 공공도서관이 지향하여야 할 目的은 다음의 세가지로 集約할 수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1) 공공도서관의 社會全體의 知識과 理解를 증진시키기 爲하여 貢獻할 것에 目的을 두어야 한다. (raising the general level of community knowledge and understanding)

(2) 공공도서관은 技術産業時代의 個人的 問題 특히 技術函養과 여가시간의 선용을 爲하여 奉仕하여야 한다(in the age of technology, new emphasis on the arts and the use of leisure time)

(3) 도서관은 企業이나 産業의 活動과 研究에 對하여 集中的으로 奉仕할 수 있어야 한다. (The service the library offers to resarch and other activities of business and industry)

Durish의 見解는 社會知識의 涵養과 個人的 기술

3) Kathleen Molz. The urban public library: A perspective. in The Metropolitan Library. Cambridge(massachusetts), MIT Press, 1972. p. 2.

4) Kathleen Moly. ibid. p. 4.

및 여가의 善導, 그리고 産業에 對한 研究奉仕라고 요약 할 수 있다.

⑤ 公共圖書館의 機能에 對한 現代의 定義는 아직 定說이 없다 Gardner, Frank M.도 지적한 바와 같이 公共圖書館의 目的定義는 相衡的이며 상호모순이 되는 바가 큰 것이다. 그러나 大體의으로 現代公共圖書館의 目的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機能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 社會發展을 爲한 研究機能——특히 産業社會가 要求하는 科學技術情報의 提供, 國家行政의 文獻情報 供給源으로서의 機能

(2) 社會知識의 向上을 爲한 文化機能——특히 社會全體의 知識向上과 國民의 정서적순화 및 自我覺醒의 동기부여가 강조 된다.

(3) 公共教育機能——生涯教育을 爲한 再教育 및 自我改善을 爲한 非定型的 教育이 強調된다.

이상과 같은 機能의 再定義는 社會變動에 對應하려는 公共圖書館의 意志를 表上한 것이라 하겠다.

5. 公共圖書館의 發展을 爲한 政策提議

위에서 論逆된 바와 같은 機能의 變化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조직에서 부터 奉仕體制에 이르기 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된다. 이 개편은 두가지 側面에서 이 록되어 처야 한다. 첫째는 國家의 公共力의 介入이 要求되는 政策指向의 要因과 項目이다. 다른 하나는 공공도서관 자체의 계획에 依하여 추진 개선되어야 할 計劃指向의 要因이다. 本이 項에서는 國家의 次元에서 解決되어야 할 政策의 項目만을 提案한다. 이 提案은 政府에서 認識하거나 實踐되어야 할 事項을 公共圖書館人의 한 사람으로서 要望하는 것이며 問題로서 提議하는 것이다.

① 政府는 文獻精報가 國家의 富의 源泉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1974年 개최된 「國家文獻精報制度(NATIS)」 創設에 關한 政府間會議의 決定 第一原則에 따라 國家水準의 文獻精報政策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1974年 9月 23일부터 3日間 개최되었던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Planning of National Documentation, Library and Archives Infrastructures에서는 86個國의 國家代表를 포함하여 254名의 政府要員이 참석한 가운데 NATIS(國家文獻精報制度)를 創設하기 爲한 16原則을 制定하였다. 이 原則의 第一初頭に Object 1. —A national information policy를 提起하면서 各國은 國家計劃의 完全한 한 部分으로서 文獻情報의 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國家의 政策으로 施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聲明하였다. 또한 情報는 그 國家의 必須의인 資源이며 社會發展과 經濟開發에 至대한 公

현을 하는 要素임을 강조하였다.⁵⁾ 이 原則은 各國이 必히 施行하여야 할 事項임을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國際的 合意는 充分한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우리 나라에서도 이를 준수하는 것은 異論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② 文獻情報政策樹立의 第一段階는 文獻과 가장 밀접한 聯關을 갖는 政府機構로 하여금 이를 主導하게 하는 主體의 決定이 있어야 한다.

國家의 文獻情報制度를 創設하기 爲하여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計劃의 立案에서 그 施行을 主導할 部署의 設定이다. 지금까지 圖書館人의 열원중 重要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의 하나도 政府機構中 圖書館部署의 確固한 定立이었다. 그러나 이 열원은 지금껏 이륙되지 아니 하였다. 前述한 國家情報制度(NATIS)의 Object 7에도 이점이 說明되어 있다. 즉 政府는 NATIS의 施行을 위하여 적절한 機構를 設置하여야 한다고 申明하고 있다.

③ 政府는 이러한 文獻情報政策을 수립함에 있어서 公共圖書館이 社會開發과 經濟成長의 重要한 要素(Factor)임을 認識하여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한 國家나 한 社會의 發展을 直接의으로 助長시키는 社會의 한 機構이며 그 國家의 文化를 保存, 傳授하는 文化機關이라는 現代의 公共圖書館의 機能을 保全하고 있다. 이러한 公共圖書館은 政策의 竟圖의인 文獻情報政策을 실현시킬 수 있는 重要한 機構인 것이다. 따라서 公共圖書館의 育成과 文獻情報政策과는 合一되는 施策인 것이다.

④ 公共圖書館은 하나의 組織網(Library Network)으로 結束시켜야 하며 多樣한 目標(Program Object)를 가진 分化된 奉仕를 전개할 수 있도록 劃策되어야 한다.

現代圖書館은 資料의 龐大함이나 要求의 多樣性 및 專門性에 비추어 分化와 協同이 불가피하다. 公共圖書館도 이에 例外일 수 없다. 따라서 政府는 公共圖書館의 全國的인 配置計劃 및 그들의 相互協同計劃을 추진시켜 社會의 要求에 充足되는 도서관으로 육성시켜야 하는 것이다.

⑤ 公共圖書館組織網의 頂點은 國家에서 設立한 國立中央圖書館에 依하여 指導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強力하게 政府로 부터 支援받는 國立中央圖書館의 育成은 무엇보다도 時急하다. 이 點은 Unisist(世界科學情報流通體制)의 計劃指針에도 明示되어 있듯이 情報의 中央統制機關은 반드시 存在되어야 하며 各國

의 行政府는 國際的 協力을 증진시키며 圖書館組織網을 形成시킴에 있어 이 中央機關을 Focal Point로 지정하여 育成시켜야 함을 力說하고 있다.⁶⁾ 이에 따라 韓國에서는 기위 조직되어 있는 國立中央圖書館을 育成하여 Focal Point로서 또한 公공도서관 조직의 頂點으로서 育成되어야 한다.

⑥ 政府는 國家文獻情報政策의 일환으로서 圖書館의 改正을 着手하지 않으면 안된다.

現行圖書館法은 1963年 制定된 以來 한번도 改正된 바 없다. 이것은 變化되는 狀況에 대한 非彈力的인 圖書館의 無氣力에 起因된 것이지 결코 現行法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政府는 圖書館界의 見解가 充實히 反映된 圖書法의 改正을 추진하여 주어야 한다. NATIS目的 第10條에도 國家文獻情報制度의 効率的인 施行을 爲하여서는 法的 保障을 要求하고 있는데 그 基本方向은 ① 納本法의 強化 ② 圖書館組織網形成의 強制性 ③ 國際的인 圖書館關係 規約의 準用 ④ 司書職의 專門性的 保障 ⑤ 司書資格證의 法的保障 등을 예거하고 있다.⁷⁾

⑦ 政府는 公共圖書館의 育成에 必要한 財源에 적절한 配定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NATIS의 目的 第11條에는 圖書館育成에 必要한 財源은 政府豫算에 삽입되어야 한다고 力說하고 있다. 近年에 와서 世界各國은 文獻情報機關育成費가 증가되기 시작하여 그 國家의 研究開發費(R&D)의 5%以上을 이에 소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⁸⁾. 우리 나라의 경우 國家豫算에 公共圖書館育成費가 조금이라도 책정되었던 것은 「公共圖書館擴充五個年計劃」의 第一次年度 예산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이미 中止된지 오래이다. 政府는 圖書館界의 所望인 政府의 積極的인 支援下의 育成되는 圖書館을 實現시켜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예산의 책정이 불가피하다.

⑧ 政府는 公共圖書館은 國民各층의 生涯教育(life-long education)의 現場으로서 자아형성과 각성의 重要한 教育的 機構임을 인식하고 이를 國民思想의 先導를 획적하는 制度的이며 政策的인 機關으로 育成하여야 한다.

現代는 急激한 變化의 渦中에 있다. 우리 나라도 急

6) 玄圭燮 「UNISIST의 目的과 韓國의 受容」 도립월보 15 (11) 1974. 11. p. 29. 참조

7)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the Planning of National Documentation, Library and Archives Infra structure. ibid. p.10 참조

8) Mary Duncan Carter & Wallac John Bank. Building. Library Collection. Metuchen, The Scarecrow, 1969. p'11 참조

5)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the Planning of National Documentation, Library and Archives Infra structures: Paris, 23-27 September 1974.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29(1), Jan-Feb. 1975. p.4-15. 참조

速한 經濟成長과 物量의 增大가 이루어지면서 外的인 變化가 招來되어 졌다. 그러나 이에 對應하는 內的인 變化 즉 정신적인 對應力은 定立되지 못하고 있다. 家族制度의 問題로부터 倫理 道德의 問題에 이르기 까지 오늘의 國民倫理는 혼미한 카오스 속에 처하여 있다. 이러한 혼돈을 탈피시키고 國民各者의 健全하며 확고한 가치 기준을 터득케함은 政府의 또 하나의 施策이어야 한다. 이 施策의 通路는 公共圖書館이다. 公共圖書館을 통한 國民覺醒의 촉구 및 政策의인 제공 등 多角의인 文化情報매체로서 活用되도록 制度化 할 것이 要望된다.

6. 自體改善을 爲한 提案

이 提案은 計劃達指向要案(program oriented element)이다. 즉 終局的인 目的에 達成하기 爲한 잠정적 목적 또는 具體的인 實現物을 基로한 目標인 것이다. 이들 目標은 公共圖書館自體의 計劃의이고 寬圖의인 노력에 의하여 成就될 수 있는 것이다.

① 첫째로 處方的奉仕(Prescription Service)라는 개념을 公共圖書館 奉仕概念속에 定立할 것을 提案한다.

이의 提案者인 Ulveling, Ralph A.는 社會的要求에 直接的인 效用으로서의 奉仕를 強調하면서 이를 처방적奉仕라고 말하였다.⁹⁾ 이 개념은 多樣化되어 가고 있는 現代의 知的要求에 具體的이며 專門的인 奉仕를 할 수 있도록 深化하는 機能을 의미한다. 一般的으로 公共圖書館은 網羅的奉仕에 基하고 있다. 이는 大象을 爲한 非동적 독서기관 또는 非동적인 교육보조기관으로서의 공공 도서관을 전제로 할때 가능하다. 적어도 實質的인 有効성과 積極的인 活動性을 基로 할때 모든 것에 대한 奉仕는 불가능하다. 이에 처방적이며 選擇的인 그리고 優先順位에 따른 奉仕가 공공도서관이 活動性이 크면 클수록 또 效果面의 極大化를 기할수록 절실히 要求되는 것이다. 最近에 대두되고 있는 Luhn, H.P.의 SDI(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이란 방식 역시 이러한 效果面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公共圖書館은 社會的 挑戰에 對應될 수 있는 明哲한 分析力과 奉仕力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지적한대로 한국의 社會도 현격하게 變化되었다. 工業分野의 현격한 증대, 社會間接資本 및 서비스 部門이 확장, 高等教育人口의 증가, 그리고 技術革新 進行 등 많은 變化가 招來되고 있다. 公共圖書館은 과연 이러한 變化中 어떤 것을 담당하였던가. 工業化를 지향하는 국가의 목적에 적극적인 자료제공을 하였는가, 또는 기술자료의 제공에 솔선하였던가, 公共圖書館은 적어도 社會的變化에 대한 구체적 대응수단을 강

구하여야 한다. 예컨대, 第3次産業에 중사하는 人口에 對하여 처방적인 奉仕를 전개한다던가 또는 産業發展 趨勢에 비추어 기계공업 섬유공업 화학공업에 대한 有効情報를 제공하도록 策劃하여야 하는 것이다.

③ 公共圖書館은 政府(또는 地方行政廳)의 役割에 對하여 보다 彈力的인 反應을 보여야 한다.

우선 公共圖書館은 行政作用力의 基礎가 되는 行政資料提供에 솔선하여야 한다. Durisch는 그의 論文「公共圖書館奉仕計劃」에서 첫번째 指針으로 政府와 公共圖書館의 關係改善(Intergovernmental Relation)을 들고 특히 行政의 地域開發計劃과 公共圖書館의 奉仕目的은 일치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⁹⁾ 또한 그는 政府機關의 各級 專門職과 圖書館人의 밀접한 관계설정을 主張하고 이들 行政의 專門職에 對한 充分한 情報奉仕를 계획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④ 公共圖書館은 必然的으로 協同組織網(Library Network)을 結成하지 않으면 안된다.

協同組織의 必然性은 再言할 필요조차 없다. 이제는 國際的인 協同體의 結成에까지 이르고 있다. Unisist(國際科學情報流通體制)가 바로 그것이다. 온 世界의 科學情報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시켜 共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中央機構를 통하여 누구나 使用할 수 있게 하는 制度인 것이다.¹⁰⁾ 現代의 어느 圖書館이건 協同없이 單獨으로 多分化된 知的要求에 對應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다. 常識이라 할 수 있는 이 原則은 우리 公共圖書館界에서는 아직도 적용되지 아니 하고 있다. 우리는 自信의 發展과 改善을 爲하여서도 協同의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⑤ 協同이란 分化된 多樣性이 前提되어야 한다. 公共圖書館은 각각의 지역적 특성이나 主題別 또는 資料別特性에 基礎한 意圖的으로 分擔된 機能을 갖추어야 한다.

美國의 公共圖書館이 1900年 初期부터 産業發展을 爲한 積極的이며 處方的인 奉仕를 展開하여 왔음에 우리는 充分한 注意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 公共圖書館에서는 産業關係資料室을 개설하여 당해지역의 産業發展에 至大한 貢獻을 하였다. 1900年 프로비넌스 공공도서관에서는 産業資料室을, 1902년에는 신시내티 공공도서관에서 有用資料室을, 그리고 1908년에는 뉴욕 公共圖書館이 産業文獻室을 設置 運營한 實例가 있다.¹¹⁾

9) Lawrence L. Durisch. 「Planning Metropolitan Library Service for the next 25 years」 Library Quarterly. 38 : 101-105. . . .

10) 玄圭燮 「Unisist의 目的과 韓國의 受容」 도립월보 15(1) / 16(1), 1974, 11/1975, 1. 참조

11) 金斗弘 譯 「産業界에 對한 公共圖書館奉仕」 도립월보 14(1) 1973, 1. p.7-11. 참조

最近에는 이러한 主題別分化 뿐만 아니라 資料別分化 까지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⑥ 公共圖書館은 意圖된 文化的活動의 有機體라야 한다.

産業社會의 產物로서 생겨진 餘暇의 善用은 現代社會가 당면하고 있는 하나의 問題이다.¹²⁾ 이 餘暇의 善用은 國民의 知的 내지는 感性的인 순화에 의하여 이룩되는 것이며 이러한 순화는 文化的의 享有를 가능하게 하는 各種行事に 참여 시키므로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公共圖書館은 多數의 國民이 自由로써 參與할 수 있는 多樣한 文化活動을 展開하여 그들에게 참된 餘暇를 善用하도록 유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기적인 各種講座의 開設 時事解説과 思想的 變化에 對한 인식을 촉구하는 강연회를 개최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政事적 활동을 助長하는 個人的, 集團의 活動의 廣場을 제공하는 일을 進개하여야 한다.

⑦ 公共圖書館은 生涯教育의 터전으로서 주어진 使命을 다하여야 한다.

生涯教育은 國家의 制度的인 學別以外的 非定型的의 教育 全體에 특히 강조되는 바 크다. 公共圖書館의 社會 教育的 機能은 바로 이점에 그 意味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 實際로 美國의 公共圖書館은 市民의 교육터전으로 短期市民大學을 개강하고 있다. 實例로서 케브릿지 公共圖書館(마사추세츠 소재) 二年制 市民大學課程을 두는 教育센터(Community Learning Centre)를 聯邦政府와 共同計劃으로 進개하고 있다. 개강된 課程은 보 건관계요원 및 소방원 등 社會奉仕要員의 養成에 主眼을 두고 있다.

⑧ 公共圖書館의 長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自己의 生涯를 獻身할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公共圖書館은 다른 도서관과는 현격하게 다른 行政機構이다. 行政組織의 特性은 엄격한 上命下復의 피라미형 조직으로서 그 規律은 타의 어느 조직 보다도 強하다. 따라서 公共圖書館의 運營은 大部分下達形式으로 집행된다. 관장은 行政的으로 機關에 해당되며

그 決定權은 거의 절대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公共圖書館의 發展은 館長의 영향하에 있다고 하여도 지나친 것은 아니다. 公共圖書館長의 圖書館觀은 무엇보다도 重要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圖書館은 物量的으로 測定 誘導되는 計量的機關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Invisible power)에 依하여 成長되는 有機體이기 때문이다. 館長의 圖書館을 爲한 獻身의이며 天職으로서의 職業觀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힘에 해당되는 것이다.

結 語

公共圖書館의 發度政策은 한 國家와 社會의 必然的인 要求에 基礎할때 비로소 施行될 수 있는 것이다. 英國이 公共圖書館發展의 모델이 되고 있는 이면에는 地方行政府와 공공도서관과의 긴밀한 관계 및 文化向上을 爲한 資金의 增大傾向에 힘입은 公共圖書館의 政策項目으로서의 有用性이 인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政策이란 公共力(즉 行政力)의 介入이 요구되며 이것이 성취되려면 그 效果面에 現實的이며 實質的인 國家發展에 연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英國은 우리가 唯一한 合理性을 갖인 目的으로 생각되어 왔던 社會教育機能을 實現시킬 수 있는 社會的 政治的인 狀況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대로 發展途上國인 우리나라에 適用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은 극히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우리의 社會的 條件은 英國의 그것과는 다르며 國家發展의 方向 역시 다르다.

이런 觀點에서 筆者는 公共圖書館이 社會 및 國家의 第一의 目的인 經濟的 發展에 直接的으로 對應하여야 함을 主張하였다. 國家는 公共圖書館의 情報源을 國力에 연결시키기 爲하여 國家文獻制度의 創說을 권유하는 유네스코의 NATIS計劃을 이행할 것을 要望하였다. 이러한 大原則下에 각각 政策提議와 自體改善을 爲한 計劃指向의 要素를 提示하였다. 이들은 全部 우리의 狀況을 基礎로하여 設定되어 있다. 이 點에서 本論考는 타의 公共圖書館論과 相異한 觀點에서 展開되어 있다 하겠다.

12) 불 랭그랑. 平生教育.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3. p. 14-16 참조

善本解題

韓國圖書館學研究會, 編
서울, 景仁文化社, 1975
356p. 26cm 5,000원(特價 3,000원)

本書는 國立中央圖書館에 所藏하고 있는 貴重圖書 686種, 2726책을 解題 收錄하였다.

특히 解說本文에 圖版을 添여 書誌學的인 立場에서 內容을 紹介하고 있다. 古書愛藏家들이나 各級圖書館에서는 必須的인 基本參考圖書가 될 것이다.

阮堂對聯書軸 (朝鮮)

金正喜, 親筆, 影印本
서울, 韓國圖書館學研究會影印, 1975
2軸, 赤色, 金箔印泥, 127×33cm, 3,000원

이 書軸은 國立中央圖書館 所藏品으로서 深紅色唐紙에 大字로 쓴 阮堂 金正喜先生의 親筆對聯을 實物크기로 影印한 것이다. 秋史體 筆致의 極을 이룬 作品이라고 한다.